

사설

공평하고 당당한 사면

조계종 종단의 대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4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의 피징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대사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최대의 종교 종단으로서 내부적 갈등에 발목을 잡혀 왔던 날 개지를 하지 못해 온 조계종 50년의 악업을 청산하기 위하여 대승적인 자세를 보인 조계종 총무원의 결단에 대하여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사면 대상자들의 참회와 호응으로 조계종이 명실상부한 대화합을 이루어 그동안 추락된 불교의 위신을 일신하는 청정 화합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한결 같은 염원이다. 만약 이번 기회에도 이러한 열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조계종은 한국의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종단의 자리를 상실해 갈 것이며, 자연 한국의 불교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직 종회의 개정 결의라는 중요한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일단 종회에서는 어떤 특정 대상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큰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애당초 어떤 대상자를 염두에 둔 사면 조치라면, 그것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회합을 위한 화합으로 흐르기 쉬우며, 더 큰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사면을 위해 이러한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냐가 원칙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공평하고도 당당한 사면의 시행이다.

대화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 종단이 당당한 권위를 회복하고, 사면 대상자들에게 대하여 불법의 정통성에 있어서, 또 도덕성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발 앞장서서 대승적 조치를 취해 나아가고, 그 시행에 있어 특정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파멸을 빚는 일없이 밝고 투명하게 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 바빠 그 동안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온 종단 내부의 요소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의 갈등 당사자이며, 아직까지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정화회의에 대하여도, 그들이 근본적인 참회 없이 종단의 분열 회복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하려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계종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열린 자세를 보이되 당당하고 엄정하게 사면을 시행하며, 뼈를 깎는 개혁으로 사면 주체의 청정성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면 시행의 원동력을 키워 나아가기 바란다.

포교사단에 투자하자

포교사단의 전국조직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2일 출범했다. 81년 종단에서 포교사를 처음 배출한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지역별, 전문기능별로 활동하는 전국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법포교사를 양성하고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실천하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포교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겠다는 포교사단의 의지가 돋보인다. 또 2007년까지 4단계 사업을 추진해 팀 활동을 확대하고 지침서를 개발하며 전문포교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포교사단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기대가 된다.

포교사단의 출범에 여러 가지 열려 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우선 포교사단의 김기병단장은 자체회비로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목표액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포교역량 제고에 더욱 힘쓰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포교사단의 활동에는 무엇보다 종단을 비롯해 스님이나 사찰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

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혹시 포교사단의 출범이 포교전법의 신기원이 마련됐다고 보기보다는 재가불자들의 조직화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승가 구성원은 없는지 모를 일이다.

조계종은 지난 1997년을 전법의 해로 설정하고 여섯 군데의 포교시범사찰과 두 군데의 포교거점사찰을 지정한 바 있다. 한국불교가 교세축전에서 매우 심각한 사정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지금도 불교계의 종노나 포교전법의 혁신조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나 진배없다.

포교는 백년대계를 향한 종단적 투자다. 이를 스님이나 불자들이 다른 이유를 내세워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긴다면 포교사단의 출범은 무의미와 다를레 없다. 거중단적인 획기적인 각오와 지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교와 전법이라는 구두선이 남발되는 가운데 한국불교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종단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다.

열린마당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거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거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치마불교 보살불교로 불릴 정도로 여성신도수가 절대 우세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라는 말처럼 불교가 균형있게 발전

거사회 활성화 방안

하려면 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성들을 신행활동에 적극 가담시켜 사찰마다 거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사회의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육바라밀 실천 적극 앞장”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등 불교에는 유명한 거사들이 많다. 이들은 재가자이지만 수행자 못지 않게 고도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한 성인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으며 출가수행자에게도 훌륭한 선지식이다.

문이다. 유마거사는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수행자들에게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육바라밀을 잘 수행해 지혜를 증장시키고, 실천수행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다.

선각(수원포교당 도감)

왔기에 고려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 나라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한 주역들이 최고의 불교 지성을 가진 거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사들이 육바라밀행을 실천함으로써 창조적인 지혜와 실천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하겠다. 전국의 거사회가 불교발전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포상이 되었으면 한다.

“법회·봉사등 다양한 운영”

1964년 대구 보현사에서 11명으로 출발한 정법회거사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 35년동안 매주 수요일 법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수계법회, 대덕스님 초청대법회, 성지순례 등을 하고 있다. 85년에는 회원들의 모금으로 자체법당을 마련했고 97년부터는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홍보활동

하는 정기법회는 청소년·청년층에서 참석이 어려워 청년회원 양성이 지지부진했다. 질 위주의 회원관리를 하다보니 초창법사들이 보기에 단출하다는 인상을 주게 돼 사기 저하 현상도 일어났다. 상임법사 네명이 법문하는 과정에서 회원 전체 수준에 맞맞는 교재선택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회일을 토요일로 옮겨 청소년·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각계 각층의 불자들이 회원으로

이병수(정법회거사회 회장)

등합할 수 있도록 법문 수준을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초교리는 물론이고 경전강의, 설법, 참선, 회원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 운영이 필요하다. 대구에는 40여개의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신행단체들을 거사들이 중심이 되어 끌어나가야 한다. 거사들은 여성 불자들에게 비해 사찰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이 취약하다. 불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등을 통한 보시행 실천도 필요하다.

“사찰·단체와 유기적 연계”

한국불교를 흔히 보살불교라고 한다. 거사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에 쫓겨 종교를 외면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한사람이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 수행을 바탕으로 거사회 활동을 통해 다진 신행과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엄영건(부산불교거사회 회장)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랜 거사회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그리고 조직의 발전은 반드시 투명한 재정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각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식 고취로 이어져 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해 줄 것이다. 혼탁해진 세상에서 맑은 법을 지켜나가는 거사회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변화만이 침체된 거사회에 활상을 가져올 것이다.

목탁소리
김중근 (취재2부 기자)

불교가 수승한 것은 대자대비한 불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자들은 이러한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무책임했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거침없이 밀려드는 각 종교의 치열한 선교의 한 가운데서 불법은 방치되고 있다. 한국불교가 교세축전에서 매우 심각한 사정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지금도 불교계의 종노나 포교전법의 혁신조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나 진배없다.

포교는 백년대계를 향한 종단적 투자다. 이를 스님이나 불자들이 다른 이유를 내세워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긴다면 포교사단의 출범은 무의미와 다를레 없다. 거중단적인 획기적인 각오와 지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교와 전법이라는 구두선이 남발되는 가운데 한국불교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종단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다.

불교예곡 대응 시점은

우리는 질문에 대한 무반응이 거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가 동그라미인데, 세모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지속돼다보면 정법의 지리에 사법이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무반응은 곧 불교예곡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상삼씨의 신간 <김용욱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가 출간되면서 김용욱씨에 대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옹호론을 펴는 쪽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이제야 형성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다.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불교인들의 깨어난 의식과 진취적 정신이 새삼 아쉬워진다. 이제는 불보살의 명호를 영송하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들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사이 외부의 힘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한 소장학자가 이런 상황에 '정법수호'란 역사적인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쾌사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무엇보다 불교지식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할 것이다.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온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본문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숙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상복지원 임팩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숙(蔞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0이 상 지난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능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중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로 쉽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변통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주문 전화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ook.co.kr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

신식 검정콩
金檀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나네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 등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귀마늘, 토종꿀, 감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윗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을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적어도 2개월을 넘기는 설명이다. 하연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윗진이 한 뒤에 기천만환을 호기하며 그마저도 국산 윗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지성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